



장롱이 된 오동나무

글 | 신 현 배
시인·아동문학가

일본 아마가다 지방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 있습니다. 굴거리나무 가지에 경단(참쌀, 수수 따위의 가루를 반죽하여 밤톨만한 크기로 둥글게 빚어, 끓는 물에 삶아 건져 고물을 문힌 떡)을 꿰어, 정월 보름날 아침에 문 위에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마치고 나서 아이들이 즐기는 또 다른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단 삶은 물을 들통(속이 깊고, 큰 들손이 달린 통 모양의 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에 담아 들고 정원이나 과수원을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이 때는 반드시 도끼를 든 아이가 따라가야 합니다. 정원이나 과수원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고요? 감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같은 과실 나무입니다.

나무를 만나러 가서는 반드시 치르는 의식이 있습니다. 먼저 도끼를 든 아이가 나무 앞에 섭니다. 아이는 도끼로 나무를 찍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열릴 거야, 안 열릴 거야? 안 열리면 도끼로 찍어 버린다.”

그러면 들통을 든 아이가 나무를 대신하여 대답합니다.

“열리겠어요, 열리겠어요.”

그러면서 아이는 들통에 담긴 경단 삶은 물을 국자로 떠서 나뭇가지에 부어 줍니다.

정월 보름날이면 나무들은 이따리를 모두 떨어뜨린 별

거숭이 몸이지요. 찬바람과 싸우며 겨울을 나고 있는데, 이런 과실 나무를 으박지르고 겁주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야 뻔하지. 올해는 제발 과실이 주렁주렁 달려라. 작년보다 더 많은 과실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때문에 나무를 헐박하는 게 아니겠어.”

그렇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수확을 거두고 싶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과실 나무만 골라 헐박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어느 해 정월 보름날에는 장난꾸러기 소년이 과실 나무가 아닌 오동나무를 헐박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 일 때문에 온 고을이 발각 뒤집히고 말았지요.

어느 곳이나 엉뚱한 일을 잘 벌이는 장난꾼은 한둘씩 있게 마련이지요. 아마가다 고을에 사는 두 아이가 그렇습니다.

정원과 과수원을 한 바퀴 돌고 난 아이들은 그냥 헤어지기가 섭섭했나 봅니다.

“경단 삶은 물이 남았네. 우리 이 물을 다른 나무에 뿌릴까?”

“어느 나무에?”

“저기 길가에 임자 없는 나무가서 있잖아.”

아이가 가리킨 것은 오동나무였습니다.

“좋아. 남은 물을 모두 뿌려 주자.”

두 아이는 오동나무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도끼를 든 아이가 킁킁 웃으며 오동나무 앞에 섰습니다. 아이는 도끼로 나무를 찍는 시늉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임자 없는 오동나무야! 열릴 거야, 안 열릴 거야? 안 열리면 도끼로 찍어 버린다.”

이제는 들통을 든 아이가 경단 삶은 물을 국자로 떠서 나뭇가지에 부으며,

“열리겠어요, 열리겠어요.”

하고 대답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경단 삶은 물을 오동나무에 몽땅 뿌리고 막 입을 열려는 찰나였습니다. 별안간 오동나무가 입을 열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열리겠어요, 열리겠어요.”

두 아이는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크악! 귀신 붙은 나무다!”

아이들은 도끼와 들통도 내버려둔 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습니다.

두 아이는 저마다 집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동나무가 말을 해요! 귀신 붙은 나무예요!”

그리고는 방금 보고 겪은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른들은 아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이 꿈을 꾸다 왔나? 말하는 나무가 어디 있다고 그래?”

“아니예요. 제 두 귀로 푹푹히 들었다니까요.”

“듣기 싫어! 또 그 소리 하면 볼기를 때려 줄 테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동나무가 보통 나무가 아니라는 게 밝혀진 것은 불과 몇 달 뒤였습니다. 봄이 되어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높이 자라났습니다.

10미터쯤 되는 오동나무가 보랏빛 꽃을 피울 때는 33미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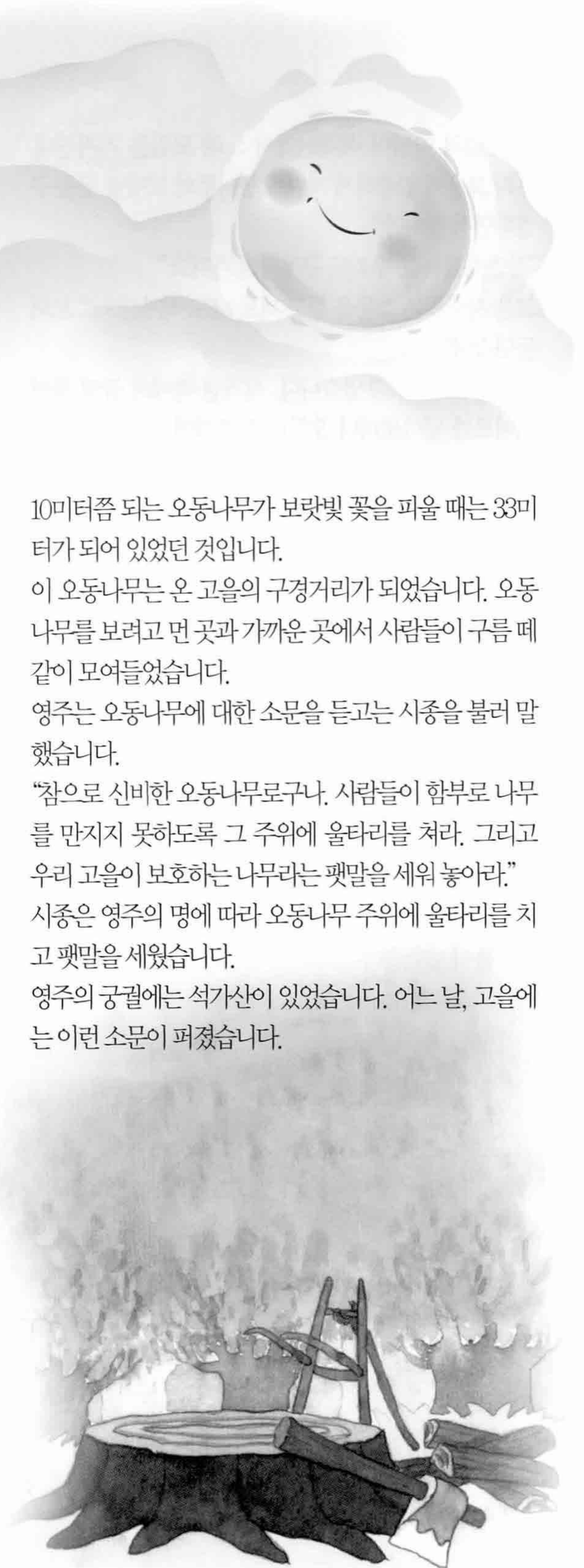
이 오동나무는 온 고을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동나무를 보려고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구름 떼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영주는 오동나무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시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오동나무로구나. 사람들이 함부로 나무를 만지지 못하도록 그 주위에 울타리를 쳐라. 그리고 우리 고을이 보호하는 나무라는 팻말을 세워 놓아라.”

시종은 영주의 명에 따라 오동나무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팻말을 세웠습니다.

영주의 궁궐에는 석가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을에는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영주님의 따님이 석가산에서 노래 모임을 가지신대. 우리 고을에 꺾충하게 자란 오동나무의 보랏빛 꽃을 구경하면서 말이야.”

“볼만하겠는걸. 우리도 구경하러 가자고.”

고을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너도 나도 석가산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오후였습니다. 석가산 쪽에서 금빛 종이 테이프가 날아오더니 오동나무 줄기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때마침 오동나무를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은 종이 테이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종이 테이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동나무!

머리에 비녀를 꽂은 새색시의 아름다운 장롱이 되겠구나.

사람들이 글을 읽고 나자, 보랏빛 꽃이 시들더니 오동나무에 넓고 큰 잎이 돌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열매가 잔뜩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시집가는 새색시의 장롱이 되겠다고 했지? 정말 신기한 오동나무야.”

“우리도 열매를 뜯어 심어 오동나무를 가꾸자고. 그래서 딸아이가 시집갈 때 장롱을 만들어 보내는 거야.”

영주는 그 날 있었던 일을 전해 듣고 시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오동나무에 방을 써 붙여라. ‘오동나무는 우리 고을 모든 백성의 것이다. 오동나무 열매는 온 백성이 하나씩 나누어 가져 자기 집 뜰에 심어라. 그리고 한 살짜리 여자아이가 시집을 가기 전에는 오동나무를 베어선 안 된다.’”

이 때부터 아파가다 고을에서는 여자 아이를 낳으면 오동나무 열매를 심고, 시집을 갈 때는 오동나무를 베어 장롱을 만드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

